

죽음보다 강한 사랑 ❀

왜 하나님께서 죽었어야 할 나를 살리셨을까?

왜 하나님은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나를 휠체어에 태워 교단에 세우셨을까?

나같이 메마르고 강박하고 용서할 줄 모르던 사람이 어떻게 사랑의 메세지를 전할 수 있던 말인가?

이 모든 의문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요, 기적이 아니고서는 그 답을 얻을 수 없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필연이다. 내 인생의 분기점은 너무도 확실하다.

이 날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육신과 영혼의 죽음에서 새로운 삶으로 부르셨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키셨고 평안과 기쁨, 꿈과 소망 그리고 진실한 사랑을 깨닫고 소유하게 하셨다.

세상 사람이라면 다시 기억하기도 싫은 끔찍한 날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의 종, 나의 택한 사람, 나의 벗으로 이가 날카로운 타작 기계로 삼으신 감격스러운 날이다.

1987년 10월 27일...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태백산을 다녀오다 당한 교통사고. 아스팔트 턱을 벗어난 바퀴, 급한 핸들 조작, 가드레일에 부딪혀 언덕을 굴러떨어짐, 두 아들과 아내의 비명소리, 희미하게 꺼져가는 의식, 장성병원에 실려와 의사가 주사 바늘로 다리를 찌르며 아프냐는 물음에 고개를 저으며 내 의식은 아득히 멀어져갔다. 등뼈가 부러지고 부서지는 중상으로 일주일여 의식을 잃고 죽음 일보직전이었으며, 한 순간 모든 것을 잃었다.

빛을 내어 샀던 자동차는 휴지 조각처럼 구겨지고 원상회복이 가능하던 아내마저도 죽고,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은 즐지에 고아 아닌 고아가 되어 형님과 누나 집에 맡기게 되었고, 평생 천직으로 여기던 교직 생활도 이젠 끝장나버린 것이다. 그나마 생명은 부지하였지만 서지도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에 의지하는 장애자가 되었으며, 친구도 형제도 직장 동료도 모두 멀어져만 갔다.

이제 남은 분은 예수 믿고 위암에서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으신 연로하신 어머니뿐이었다. 또한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며 시험당할 즈음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 예수도 교회도 전혀 알지 못하던 내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셨다. 죄악된 세상에서 불순종하며 살다가 불의의 사고로 침대에서 꿈쩍도 할 수 없는 나에게 주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서는 채찍을 맞으셨고 머리엔 가시 면류관, 두 손과 발에 큰 못이 박히셔서 엄청난 아픔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이다. 십자가에서 아픈 곳을 어루만질 수도 없으셨고 고통에 못 이겨 몸을 비틀면 손

과 발이 더 찢어지고 더한 피를 쏟으셔야 했던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진 것이다.

죽음의 긴 터널을 벗어나 회개와 눈물 골짜기를 지나 믿음의 강을 건너오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평안과 자유함을 주셨다. 나를 항상 안아주시며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며 위로해 주셨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절대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선 새로운 사랑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셨다. 천사같이 아름다운 아내를 보내주셨고 보고 싶은 두 아들도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되었고 새 집과 새 차도 주셨다.

더욱 놀라운 기적은 우리 날에선 처음으로 지체장애자로 휠체어를 타고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거기서 죽음보다 더 강한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전하며 사랑의 실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선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오실 그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해져야 한다. 우리의 나약함을 깨닫고 삶의 매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보자. 죄악과 죽음을 이기시고 시험과 마귀 권세를 물리치신 우리 대장 예수님과 함께할 때 실패와 좌절은 없으며 실패 같으나 승리를 얻는다.

나는 비록 서지도 걸지도 못하나 영원한 승리자이다. 우리는 종말이 가까울수록 시간을 정하여 깨어 있도록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또한 "나를 구원해주세요. 어서 와서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야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전 21:1)

엄기소/ 태백 황지여상 교사. 루아감리교회 집사.

✧ 청소년과 함께하는 QT나라 , 「 새벽나라 」제공
<http://isena.com/>